

# 일본에 수용된 화살의 교훈담\*

노성환\*\*

(e-mail : nosh1@hanmail.net)

## <목 차>

- |                           |                    |
|---------------------------|--------------------|
| 1. 들어가기                   | 4. 일본에 수용된 화살의 교훈담 |
| 2. 이야기의 근원지는 소아시아         | 5. 나가기             |
| 3. 선비족과 몽골 그리고 한국의 화살 교훈담 |                    |

키워드 : 毛利元就(Mori motonari), 三矢の訓え(The Apologue of the Three Arrows arrows),  
イソップ寓話(Aesop's Fables), スキタイ(Scythia), 高句麗(Goguryeo)

## 1. 들어가기

우리의 현대 속담에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은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남긴 명언이다. 1945년 10월 16일 미국에서 귀국한 이승만은 다음 날 저녁 8시 30분 서울 중앙방송국의 전파를 통해 첫 연설 방송을 했는데, 당시 그는 "나를 따르시오,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라고 말했다. 그에게 가장 시급했던 것은 정부 수립이었다. 주변 강대국들이 한국인들에게 즉각 독립을 허용하지 않을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한 그는 미국과 소련이 한국인이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단결이 시급했던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몽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나오게 되었다.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이다(NRF-2017S1A6A3A01079869).

\*\* 울산대학교, 교수, 역사민속학

이같이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교훈적인 내용을 실화세계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필자는 주저 없이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세 개의 화살 교훈담을 떠올린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한 장군이 있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그가 임종하기 전 세 아들을 불러놓고 한 개씩 화살을 주면서 부러뜨려 보라 하였고, 이에 응한 아들들은 쉽게 부러뜨리자, 이번에는 3개의 화살 다발을 주어 꺾어보라고 하자 아무도 꺾지 못했다. 이를 통해 세 아들에게 단결의 교훈을 남겼고, 그 결과 아들들은 싸움에 나가서 크게 이겼다는 것이다.

이것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필자의 귀에는 매우 익숙해져 있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좀처럼 발견되지 않는다. 심지어 전국을 대상으로 수집한 민간설화집인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부모님은 이것을 어디에서 들었을까? 해방 이후 일본에서 귀국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본에서 들었을 가능성도 높다.

한편 이 이야기는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하다. 그것은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중세 일본의 무장이었던 모리 모토나리(毛利元就:1497-1571)와 관련된 역사적 실제의 이야기로도 알려져 있다. 즉, 모리가문의 선조인 모토나리가 아들 세 명을 불러놓고 손에 화살을 쥐고는 「이 화살이 하나라면 누구나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3개의 화살이 하나면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 너희들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사이가 좋아야 한다」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자식들의 화합을 바라는 심정은 비단 모토나리만이 가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자식을 둔 이 세상의 부모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가치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잘 대변해주고 있는 세 개의 화살의 이야기도 일본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단적인 예로 유럽의 로스차일드라는 유명한 가문을 들 수가 있다. 유럽에서는 「로스 차일드(Rothschild) 가문의 지원이 없다면 유럽의 어느 나라도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국제 금 가격은 영국에 있는 로스 차일드 은행에서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유럽의 금융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금융 재벌 명문가로 통한다. 이들 가문의 시조 로스 차일드는 1774년 가난한 독일계 유대인 출신으로 일찍 조실 부모하고 은행에서 심부름 사원으로 출발하여 금융가로서 대성공을 거둔 사람이다. 그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들에게 “화살의 한 개는 쉽게 부러지나, 힘을 합친 5개는 부러지지 않는다.”고 하며 형제의 결속을 강조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그의 후손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상징물인 가문의 문장에 다섯 개의 화살을 넣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이 지역과 시대를 달리하지만 일본의 모리 가문과 유럽의 로스 차일드 가문에서 내려오는 화살의 교훈담은 매우 유사하다. 이들 두 가문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기에 화살의 이야기가 자손들에게 꼭 지켜져야 하는 가훈으로서 전해지는 것일까? 여기에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모델이 되는 조형(祖型)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이상과 같은 3개 화살의 교훈담에 대해 관심을 가진 연구자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고는 이같은 이야기가 유럽과 일본에 동시에 전해진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문화전파의 결과로 보고, 그것의 뿌리(조형)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일본과 유럽에 각각 전래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일본에는 언제부터 어떻게 정착되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이야기의 근원지는 소아시아

이상에서 본 화살의 교훈담은 일본의 모리와 유럽의 로스 차일드의 예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해 있다.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불경 중 『현우경(賢愚經)』(제12권 「파바리품(波婆離品) 제50」과 『잡보장경(雜寶藏經)』(제4권 「대애도시불금루직성의병천주사연(大愛道施仏金縷織成衣并穿珠師緣)」)에도 있다. 전자는 5세기 중엽 중국 위(魏)나라 학승 혜각(慧覺)이 번역한 것이고, 후자는 후위(後魏)의 길가야공담요(吉迦夜共曇曜)라는 인도 승려가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시대적으로 빠른 전자의 예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1>

과거 91겁 전에 비바시라는 부처님이 계셨다. 그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법이 장차 사라지려 할 때에, 이 염부제 안에 큰 나라가 있었는데, 이름이 바라내였다. 그 때 그 나라에 큰 상주(商主)가 있었다. 그는 큰 부자로서 아무 모자람이 없었다. 그에게는 얼굴이 단정한 두 아들이 있었다. 큰 아들은 이름이 누타(淚)요, 작은 아들은 아루타(阿淚)였다. 아버지는 임종 때에 두 아들에게 분부하기를 “나는 할 수 없이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너희 형제는 서로 받들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합하고 힘을 모아 부디 따로 살지 말라. 왜냐 하면, 마치 한 가닥 실로는 코끼리를 잡아 뱉 수 없지마는, 많은 실을 합치면 코끼리를 제어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또 갈대 하나는 혼자 불붙지 못하지마는, 그것을 묶어 한 묶음을 만들면 그 불은 꺼지지 않는 것과 같다. 너희 형제도 그와 같다. 서로 의지하고 믿으면 남들이 헐지 못하고, 안으로 화목하여 살림에 힘쓰면 재산이 날로 늘어갈 것이다.” 이렇게 부탁하여 훈계한 뒤에 기운이 끊어져 목숨을 마쳤다. 형제는 아버지 유언대로 얼마 동안 한 집에 살았다.<sup>1)</sup>

이상에서 보듯이 이 이야기는 임종을 앞둔 아버지(商主)가 두 아들에게 코끼리를 묶을 수 있는 밧줄, 그리고 불붙는 갈대의 묶음에 비유하여 형제의 우애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잡보장경』의 이야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잡보장경』에서는 비록 갈대의 묶음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버지(장자)가 두 아들에게 「부디 갈라져 살지 말라. 마치 실 한 가닥은 코끼리를 잡아매지 못하지만, 실을 많이 모으면 코끼리도 끊지 못하는 것처럼 형제가 한데 사는 것도 많은 실과 같으니라.»<sup>2)</sup> 고 훈계하고 목숨을 마쳤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형제의 우애와 결속을 당부하기 위해 어떤 도구의 묶음을 이용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모토나리의 화살교훈담과 닮아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았을 때 일본과 차이를 보인다. 일본 모토나리의 교훈담은 무장담계 화살로 되어있다. 등장하는 자식의 수도 3명이다. 그리고 내용도 부러뜨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에 비해 <사례1>은 자식의 수가 2명이며, 비유물도 화살이 아닌 실과 갈대이며,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묶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한 가닥의 실은 코끼리를 묶을 수 없지만 그것이 모여 굵은 밧줄

1) 동국대 한글대장경 『현우경』, pp.362-363. (<https://abc.dongguk.edu/ebti/c2/sub1.jsp> 검색일: 2020.04.30.)

2) 그에 대한 원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長者得病，臨命終時，約勅兒子：‘愼莫分居。譬如一絲不能繫象，多集諸絲，象不能絕。兄弟竝立，亦如多絲。’時彼長者，囑誡子竟，氣絕命終。」 『잡보장경』 4권(ABC, K1001 v30, p.203b12-b16)

을 이루면 묶을 수 있으며, 갈대도 하나이면 불을 붙일 수 없지만 여러 갈대를 한 묶음으로 만들면 불이 붙는다고 하였던 것이다. 화살과 실, 갈대, 그리고 2명과 3명의 자식, 부러뜨리는 것과 묶는다는 것이라는 두 텍스트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다시 말해 <사례1>에서 곤장 모토나리의 이야기로 변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본다. 그러므로 <사례1>을 모토나리의 교훈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조형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모토나리 화살교훈담의 고향은 어디일까? 내용의 소박함이나 오래된 역사성으로만 본다면 그것의 고향은 동아시아가 아닌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소아시아 및 메소포타미아인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솝우화」에서 그것과 같은 유형의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헤로도토스의 『역사(歷史)』에 의하면 기원전 6세기경 소아시아 출신 아이소포스(Aesop)라는 노예가 우화를 잘 구사하여 당시 그의 명성이 자자했다고 적고 있듯이 그의 우화를 모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솝우화」이다. 즉, 아이소포스가 이솝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솝우화는 기원전 6세기 이전의 이야기이며, 그 속에는 들어있는 이야기 또한 이솝의 고향 소아시아를 비롯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전승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솝이 실제로 존재한 역사적 인물인지 미지수이며, 또 언제부터인지 이솝이라는 이름이 우화를 이야기하는 사람 혹은 우화 그 자체를 모두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원전도 불분명하며, 현존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후세의 사람들에 의해 편집된 것들이며, 그것도 고대의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된 것이 있다. 그러므로 이솝우화라 하더라도 한 가지 유형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중 모토나리 화살교훈담과 가장 많이 닮은 것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 <사례2>

어느 농민의 아들들이 자주 형제들끼리 싸웠다. 농민은 자주 자식들을 위해 충고의 말을 했지만, 말로는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했다. 먼저 그는 아들들에게 다발로 묶은 장작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이에 자식들은 장작을 가지고 오자, 그 다발을 자식들에게 건네주며, 부러뜨려 보라고 했다. 자식들이 아무리 힘을 내어 부러뜨리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발을 풀고 자식들에게 하나씩 주자, 이들은 쉽게 부러뜨렸다. 이를 보고 아버지는 “너희들도 힘을 합하면 결코 적에게 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싸움을 하면 곧 적에게 당하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sup>3)</sup>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이것은 화살이 아닌 장작을 통한 교훈담이다. 아버지도 권력층이 아닌 지극히 평범한 농민이다. 농사를 지으며 살던 아버지가 항상 사이가 좋지 않은 두 아들에게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장작을 이용하고 있다. 즉, 이솝우화에서는 지배계층이라기 보다는 일반 서민들의 이야기였던 것이다. 그런데 기원전 1세기경에 성립된 하브리오스의 이솝우화집에서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사례2>와는 조금 다르게 서술되어있다.

#### <사례3>

옛날 나이가 많은 남자가 있었다. 그에게는 많은 자식들이 있었다. 그가 목숨이 다하려고 할 때 자식들에게 어디에 가다가 다발로 묶인 막대기(棒)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했다. 자식들이 그 다발을 가지고 오자 “애들아 전력을 다하여 다발을 풀지 말고 막대기 부러뜨려 보아라”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부러뜨릴 수가 없었다. “그럼 한 개씩 해 보거라”하자, 이번에는 누구나 쉽게 부러뜨렸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애들아 마음을 하나로 뭉치면 어느 누구도, 어떤 강력한 힘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을 꿈쩍도 못하게 한다. 그러나 마음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면 너희들은 이 한 개의 막대기와 같을 것이다.”<sup>4)</sup>

이처럼 이상의 <사례3>는 <사례2>와 비교하여 보면 서로 닮아있으면서도 조금씩 다르다. 먼저 차이점으로는 자식에게 훈육하는 아버지의 신분이다. <사례2>에서는 농민으로 되어있지만, <사례2>에서는 나이 많은 노인으로 되어있으며, 자식의 수 또한 <사례2>에서는 두 명이었던 것이 <사례3>에서는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단지 다수라고만 표기되어있다. 그리고 훈육의 도구가 <사례2>에서는 장작으로 되어있지만, <사례3>에서는 막대기로 되어있다.

3) 山本光雄譯(1974) 86話 「〈兄弟喧嘩をする〉百姓の息子たち」 『イソップ寓話集』、岩波文庫、p.79.

4) 河野与一編譯(2000) 「棒のおしえ」 『イソップのお話』、岩波書店、p.62.

그러나 서로의 공통점도 발견된다. 모두 자식들에게 먼저 다발로 묶어진 것을 준 다음에 하나씩 주며 부러뜨리는 순서는 <사례2>와 <사례3> 모두 같다. 그리고 도구가 장작 또는 막대기라는 것에서 보듯이 무기이거나 금전적인 가치를 지닌 것들이 아니다. 또 아버지의 직업과 신분이 정치적 경제적 지도자가 아닌 농민 또는 노인으로 묘사되어있다는 점도 닮아있다. 즉, 명문가의 교훈담이 아닌 것이다. 더구나 이 두 개의 설화는 모두 부러뜨리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상의 「이솝우화」에 나오는 자식에게 유훈을 남기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불교의 『현우경』보다 일본의 모토나리 화살교훈담의 조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이야기가 소아시아에만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같다. 아랍에서는 타바리(Tabari)의 우마이야(Umayyad) 왕조의 명장 무함람무의 유언 이야기로 나타나고, 아프리카에서는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잔지바르에서 민화의 형태로 발견된다. 그리고 러시아의 민화에서도 발견된다. 그 중 가장 거리가 먼 잔지바르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4>

옛날 넓은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 남자는 아내와 둘이서 작은 밭에서 시작하여 50년 후에는 마을의 반 이상의 밭을 가질 정도로 부자가 되었다. 남자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고, 모두 훌륭한 젊은이로 성장해 있었다. ...<생략>...이같이 착한 일만 골라 하였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들을 좋아했다. 그러한 그에게도 나이는 이길 수가 없었다. 어느 해 갑자기 기력이 빠져 드디어 일어날 수 없을 정도가 되었고,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자는 아내를 불러 “이제 나는 신의 곁에 가야 한다. 아침을 먹으면 아들들을 불러다오.”라고 말을 했다. 이를 듣자 3명의 아들들은 아침도 거르고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다. 남자는 .....<생략>... 자신의 베개 밑에서 3개의 화살을 끄집어냈다. 그 화살은 밧줄로 단단하게 묶여 있었다. 남자는 그 3개의 화살을 자식들 앞에 내놓으며, “이 화살을 한꺼번에 부러뜨려 보아라”고 말했다. 이에 첫째, 둘째, 셋째가 모두 시도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3개의 화살을 부러뜨릴 수 없었다. 남자는 3개의 화살을 묶은 끈을 풀더니, 화살을 한사람 하나씩 나누더니 “이 화살을 꺾어 보거라”고 했다. 이번에는 첫째, 둘째, 셋째 모두 가볍게 꺾어 버렸다. 이를 보더니 남자는 무겁게 말을 했다. “이 화살은 너희들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라면 견딜 수

없는 것이라도, 형제 3명이 힘을 합하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내가 죽더라도 형제 3명이 언제나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결코 한 개의 화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2주후에 사망했으며, 이에 가족과 마을 사람도 모두 이 남자의 죽음을 슬퍼했다.<sup>5)</sup>

여기에서는 부유한 농가 주인이 아들들에게 남긴 화살교훈담이다. 비록 재료가 화살로 되어있지만 먼저 아들들에게 다발을 건네고, 그 다음에는 다발을 풀어서 한 개씩 건네고는 부러뜨려 보라는 내용의 전개는 <사례2>와 <사례3>과 같다.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전승되었는지를 알 수 없어, 전래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우나, 이솝 이야기에서 발단된 것이 아프리카의 동부까지 확대되어 갔음을 말해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한편 러시아의 민화에는 <사례4>와 같이 화살이 아니라 나뭇가지로 되어있다. 그러한 점에서는 이솝우화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5>

옛날 한 농민이 살고 있었다. 그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서로 사이가 나빠 종일 입씨름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7개의 나뭇가지를 한 가닥으로 묶은 것을 그들 앞에 두었다. “너희들 중에 이 나뭇가지 다발을 부러뜨린 사람에게는 100루프리를 주겠다.”고 했다. 아들들은 차례로 그 다발을 들고 부러뜨리려고 하였으나, 그럴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아들들은 그 다발을 원래의 자리로 내어 놓았다. “부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고 하자, “아하, 지혜가 부족하구나.”고 말했다. “무엇이 쉬운 것이냐 하면, 이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일만큼 쉬운 일이 없다.” 그리고는 다발을 잡아서 묶음을 풀고 가지를 하나하나 분리시켜 부러뜨리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그렇게 하면 물론, 어려운 것은 없다. 이러한 것은 어린아이들도 할 수 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너희들은 아이들이다. 묶은 나뭇가지와 마찬가지로이다. 너희들이 서로 단단히 묶여있는 한 모든 일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너희들에게 이길 수가 없다. 그러나 일단 사이가 나빠 서로 싸운다면, 너희들은 모두

5) 島岡由美子(2015) 「アフリカから三本の矢」 『一冊の本』、朝日新聞出版、2015年11月号。HP 「OPENDOORS」

모두 부러져 들판에 버려지는 나뭇가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sup>6)</sup>

이상에서 보듯이 <사례5>는 7개 나뭇가지를 한 다발로 묶어 사이가 나쁜 7명의 아들에게 교훈을 주는 이야기로 구성되어있다. 이처럼 기원전 소아시아에서 성립된 이솝의 우화가 북방의 국가 러시아에도 전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이솝의 우화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일찍이 스키타이지역에도 전해진 것 같다. 그 대표적인 예로 스키타이왕 스킬로스(Skilurus) 이야기를 들 수가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영웅전』으로 잘 알려진 고대 로마의 그리스인 철학자이자 저술가인 플루타르코스(Plutarch:46-120)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사례6>

스키타이왕 스킬로스는 80명의 자식들을 남겼다. 그는 죽기 전에 다발로 묶은 창을 가지고 오라고 했다. 자식들에게 다발을 풀지 않고 그대로 창을 부러뜨려보라고 했다. 이에 자식들은 체념을 하자, 이번에는 왕이 직접 그 다발에서 창을 한 자루씩 뽑아내더니, 그것을 간단히 부러뜨렸다. 그리고는 왕은 아들들에게 서로 협력하고 일치단결하면 강해져 싸움에 지지 않지만, (그와 반대로) 뿔뿔이 흩어지면 약해져서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sup>7)</sup>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사례6>은 왕가의 이야기이다. 이솝우화에서 평범한 농민 또는 노인이었던 아버지의 신분이 여기에서는 스키타이의 왕으로 변신되었다. 자식의 수도 신분에 걸맞게 80명으로 불어나 있으며, 또 도구도 나무토막이 아니라 창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도구를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순서가 다발에서 하나씩으로 나누어주며 실행에 옮긴다는 점에 있어서는 앞에서 본 이솝우화와 같다.

스키타이란 기원전 6-3세기경 이란 북부 러시아 남부의 초원지대에서 활약한 최초의 기마유목 민족을 가리킨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흑해 북쪽 돈강에서 프루트강에 이르는 초원지대를 스키타아(Skythia)라고 부르고 그 초원에 살았던 페르시아계 민족을 스킷인이라고 하였다. 이들이 스키타이인들이다.

6) 護雅夫(1952) 「矢を分け与える話 -北アジアシャーマニズム研究の一節-」 『北方文化研究報告』 第7輯、北海道大學北方文化研究室、p.95.

7) プルタルコス、柳沼重剛譯(1985) 『饒舌について-他五篇』、岩波文庫、p.64.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의하면 스키타이인들은 동방과 교역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자신들이 생산하거나 페르시아와 그리스에서 수입한 공예품이나 장신구들을 동방에 수출하고, 알타이 지방에서 채취되는 황금이나 중국, 몽골 일대에서 생산되는 직물류를 서방으로 운반하는 일종의 중계무역활동을 활발히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동방교역 루트를 보면 흑해(아조프해) → 돈강 → (동북향) 불가강 중류 → (동북향) 우랄 산맥 → (동남향) 이르티시강 → (동남향) 알타이 산맥 남쪽까지로 이어지는 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루트를 따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례4>와 같은 이야기를 동북아시아의 민족들에게 전래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 3. 선비족과 몽골 그리고 한국의 화살 교환담

「이솝우화」의 교환담이 스키타이 유목민에게 전해지고, 또 그것이 동진하면 스키타이민족과 빈번한 접촉이 있었던 유목민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지 모른다. 아니나 다를까 그러한 예가 선비족에게서 먼저 나타났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서쪽에 위치한 칭해(靑海) 지역 일대에 토곡혼(吐谷渾)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이들은 요서(遼西)의 선비모용부(鮮卑慕容部)에서 파생된 부족이 세운 국가로서 4세기에서 7세기경까지 존재하다가 티벳계의 토번(吐蕃)에게 멸망한 나라이다. 그곳은 한냉 기후지역이어서 농업이 발달할 수 없으며, 주민들은 주로 유목생활을 하였으며, 특산물로도 소, 말, 낙타가 유명했다. 특히 그들이 생산하고 있는 칭해준(靑海駿)이라는 말은 「하루에 천리를 가는 용종(龍種)」이라 하여 중국인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있었다.

동양사학자 지배선은 당시 토곡혼은 초원국가의 형태를 갖춘 유목제국이었으며, 서역제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한다.<sup>8)</sup> 이들의 서역과의 교류는 실크로드를 따라 이루어졌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인도의 북부와 페르시아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토곡혼은 스키타이 지역의 문화와도 접촉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례6>과

8) 지배선(1983) 「토곡혼과 서역제국과의 교섭에 대하여」 『한성사학(1)』, 한성사학회, p.105.

같은 스키타이왕가의 이야기가 전래되었을 것이다. 이들의 역사를 기록한 『북사(北史)』의 「토곡혼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수록되어있다.

<사례7>

아시(阿豺)에게는 20명의 아들이 있었으며, 위대(緯代)가 맏아들이었다. 아시가 또 말하기를 “너희들은 각각 나에게 화살 한 발씩 가져와서 그것을 땅에다 펼쳐라.”라고 하였다. 곧이어 어머니가 같은 동생 모리연(慕利延)에게 명하기를 “너는 한 발의 화살을 주어서 꺾어라”고 하였다. 모리연이 그것을 꺾었다. 다시 말하기를 “너는 19발의 화살을 주어서 꺾어라”고 하였다. 모리연이 꺾지 못했다. 아시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알겠느냐? 한발은 쉽게 꺾이지만 여러 발은 꺾기 어렵다. 힘을 모아 한마음이 된 후에야 사직은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죽었다. 모괴(慕瓚)가 뒤를 이었다.<sup>9)</sup>

『북사』는 당나라의 역사가 이연수(李延壽)가 부친인 이대사(李大師)가 편찬하던 작업을 이어받아 완성시킨 역사서로 전 100권, 「본기(本紀)」 12권, 「열전」 88권으로 구성되어있다. 이상의 이야기는 「열전」의 제84에 나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과 비교하여 보면 상당부분에 걸쳐 차이가 난다. <사례2, 3, 4, 5>와 같이 이야기가 농민과 노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왕가와 결부되어있다는 점에서 <사례6>과 닮아있다. 자식의 수가 많은 점에서도 서로 공통된다. 스키타이에서는 자식의 수가 80명으로 되어있지만, 토곡혼에서는 20명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다. <사례6>는 도구가 창으로 되어있지만, <사례7>은 화살로 되어있으며, 또 도구를 자식들에게 건네주는 것도 <사례2, 3, 4>와는 정반대로 하나에서 다발의 순서로 되어있다. 그리고 <사례7>에서는 부친이 자식들에게 화살의 교훈을 일깨운 뒤 곧 죽었다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유언의 형식으로 되어있다. 이 점은 <사례6>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유언의 형식을 갖춘 화살의 교훈담은 선비족 토곡혼에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습우화에서 시작된 장작과 막대기의 교훈담이 스키타이에서는 창으로 변신하더니, 토곡혼에 이르러서는 화살로 변화되어있는 것이다.

9) 동북아역사재단편(2010) 『북사 외국전 역주(상)』, 동북아역사재단, pp.196-197.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북사』 이외에도 『위서(魏書)』의 「열전」(제89, 吐谷渾傳), 최홍(崔鴻)의 『십육국춘추(十六國春秋)』의 「서진록(西秦錄)」, 『태평어람(太平御覽)』의 「진상(箭上)」에도 수록되어있다. 이처럼 화살의 교훈담은 동북아시아에서는 토곡혼의 왕가의 이야기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화살을 소재로 한 교훈담이 다시 동진하여 몽골족에게 전해지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사례8>

어느 봄날 겨울에 잡은 저장해두었던 양을 삶고 벨구누테이, 부구누테이, 보고 카타기, 보카토 살지, 보돈차르 바보 이 다섯 아들을 나란히 앉게 하고는 화살 한 대씩 꺾어보라고 주었다. 한 대씩이야 무엇이라고 지체하겠는가? 다시 다섯 대의 화살 묶음을 꺾어 보라고 주었다. 다섯 모두가 다섯 대의 화살 묶음을 꺾으려고 돌아가며 시도해 보았으나 아무도 꺾을 수 없었다. ....<중략>.... 다시 알란 고아가 다섯 아들에게 타이르기를 “너희들, 나의 다섯 아들은 한 배에서 나왔다. 너희들이 방금 전에 본 다섯 대의 화살처럼 하나 하나가 되면 그 한 대씩의 화살처럼 누구에게도 쉽게 꺾인다. 너희들이 저 묶음화살들처럼 함께 한 마음이 되면 누구에게든 쉽게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지내다 그들의 어머니인 알란 고아도 세상을 떠났다.<sup>10)</sup>

이것은 중세 몽골의 역사서인 『원조비사(元朝秘史)』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몽골비사』라고도 불리는 『원조비사』는 원래 구비문학에 가까운 것이어서, 언제 어디에서 성립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견해를 달리하나 대략 13세기 중엽 혹은 14세기 초반에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용은 징기스칸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그의 씨족 전승으로부터 후계자 오고테이의 치세 도중까지의 역사가 기술되어있다. 위의 <사례8>은 그 중에서 징기스칸의 선조인 알란 고아가 아들 5명에게 남긴 임종 유언 이야기이다.

그런데 내용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보면 <사례7>과 가장 많이 닮아있다. 왕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도 같고, 창이 아닌 화살을 부러뜨린다는 점에서도 같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자식의 수가 20명이 아니라, 5명이라는 점과 자식들에게 훈육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소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0) 유원수역주(2006) 『몽골비사 -元朝秘史-』, 사계절출판사, pp.26-27.

이처럼 화살의 교훈담은 소아시아에서 시작하여 그리스의 이솝우화에 정착했고, 또 그것이 아랍과 유목민 스키타이인에게도 전해져 왕가의 이야기로 윤색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동진하여 선비족의 국가인 토곡혼의 왕가 이야기가 되었고, 또 동쪽으로 이동하여 몽골의 초원에 도착하여 징기스칸의 선조 이야기가 되었다.

화살의 교훈담이 동쪽으로 전파해온 경로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점은 그것이 북쪽 유목민들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이며, 그에 비해 남쪽인 중국의 한족 사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굳이 있다면 당나라 말기 활약한 이극용(李克用:856-908)과 3개의 화살이다. 송나라 왕우칭(王禹偁)이 쓴 『오대사궤문(五代史闕文)』에 다음과 같은 일화가 소개되어있다.

#### <사례9>

이극용은 죽음을 맞이하여 아들 존욱(存勗)에게 3개의 화살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다. “유인공(劉仁恭) 부자가 나를 배신하고, 거란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 또한 나와서 맹약을 배신했다. 주전충(朱全忠:852-912)은 나에게 원수와도 같은 존재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3개의 화살 중 첫 번째는 유인공에게, 두 번째는 거란에게, 세 번째에는 주전충을 멸망시킬 때까지 각각 사용하거라. 이것이 내가 희망하는 소원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비록 이극용이 이용한 3개 화살은 지금까지 우리가 본 3개의 화살과 의미가 다르다. 그것들은 자신과의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화살이었다. 즉, 자식들에게 화합과 결속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의미하는 복수와 죽음의 화살이었다. 그러므로 이극용의 3개 화살은 이솝이야기에서 전파된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다시 말해 「절전지훈(折箭之訓)」이라는 사자성어는 있어도 그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사례 7>에서 보았던 것처럼 「토곡혼」의 아시와 아들의 이야기로 수용되었을 뿐, 이를 한족의 영웅을 윤색하는데 사용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한반도에서도 발견된다. 그것도 선비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졌던 고구려이다. 그 예가 다름 아닌 『환단고기(桓檀古記)』(태백일사 고구려국 본기)에 있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lt;사례10&gt;

막리지(莫離支)가 임종할 때 남생(男生)과 남건(男建)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너희들 형제는 서로 사랑하기를 물처럼 하여야 한다. 화살을 함께 묶으면 강하지만, 이를 나누면 꺾이는 것이니, 모름지기 이를 잊지 말라.”하였다. 이 말은 천하와 이웃나라의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때는 개화 16년 10월 7일이었다. (爾兄弟 愛之如水 束箭則強 分箭則折 須無忘 此將死之言 貽 笑於天下 隣國之人 時則 開化 十六年 十月七日也)」라고 되어있다.<sup>11)</sup>

이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환단고기』는 1911년 계연수(桂延壽: ?- 1920)가 『삼성기 상(上)』, 『삼성기 하(下)』,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의 5가지 책을 엮고 해제를 달아 서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를 제자인 이유립(李裕兪: 1907-1986)에게 주고 60년 뒤에 공개하라고 하였다. 그에 따라 이유립은 이 책을 간직하고 있다가 1979년에 출간하여 세인들에게 공포가 된 책이다. 또 혹자는 『환단고기』의 저자가 계연수가 아닌 이유립이라는 설을 주장하기도 한다. 역사학계에서는 이를 검증한 결과 위서로 판단하여 고증세의 사료로서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역사학계에서는 부정적인 서적이지만, 화살의 교훈담이 연개소문과 결부되어 서술되어있고, 그것이 우리 측의 문헌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화살의 교훈담이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의 9세기경의 문헌인 『일본서기(日本書紀)』(天智天皇 3년(664년) 10월조)에도 그와 유사한 내용이 엿보인다.

## &lt;사례11&gt;

이 달에 고려의 대신 개금(蓋金=연개소문)이 그 나라에서 죽었다. 개금은 자식들에게 유언하기를 「너희들 형제는 고기(물고기)와 물같이 화합하여, 작위를 다투는 일을 하지 말라, 만일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이웃나라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여기서도 연개소문이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고 있

11) 김은수(1991) 『註解 桓檀古記』, 기린원, pp.237-238.

12) 井上光貞譯(1987) 『日本書紀(下)』, 中央公論社, p.271.

다. 그러므로 그 부분을 강조한 『환단고기』의 내용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서기』의 것이 『환단고기』와 차이를 보인다면, 화살의 교훈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단고기』가 원래 없었는데, 편찬자가 화살의 교훈담을 새롭게 첨부한 것인지, 아니면 『일본서기』가 원래 있었던 화살 교훈담을 빠뜨리고 서술하였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유언으로 아들의 단합을 강조한 것은 역사적 사실인 것 같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한국사회에서 널리 확대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를 소개한 것이 『환단고기』 이외에 어느 문헌에도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구비전승에서 조차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교훈담이 극히 일부 계층에만 소유되었을 뿐 한국의 민중과 더불어 폭넓게 회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일본에 수용된 화살의 교훈담

이에 비해 이러한 화살의 화살교훈담은 일본에서는 널리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고구려의 연개소문보다 훨씬 후의 인물인 전국시대의 무장 모리모토나리와 결부되어 전승되어졌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 <사례12>

모토나리(元就)가 임종을 맞이하기 직전 장남 다카모토(隆元), 차남 모토하루(吉川元春), 삼남 다카카게(小早川隆景)를 불러 모았다. 그리고는 화살을 하나씩 나누어주면서 「꺾어보아라」 하였고, 이에 아들들은 쉽게 부러뜨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개의 화살을 다발로 묶어 건네면서 「꺾어 보거라」 고 하였더니, 아들들은 누구도 이를 꺾지 못했다. 그러자 모토나리는 말하기를 「아들들아. 잘 듣거라. 하나라면 간단히 꺾을 수 있는 화살이라도 3개로 하나로 묶으면 쉽게 부러뜨릴 수 없다. 이처럼 너희들도 형제 3명이 힘을 합하여 단결하면 더할 나위 없이 힘을 발휘하여 모리가문도 안태를 누릴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sup>13)</sup>

13) 井澤元彦(2001) 『逆説の日本史 (9) 戦國野望編』、小學館、pp.222-223.

이상의 이야기는 <사례7>, <사례8>과 아주 흡사하다. 그 이야기를 활용하는 자가 영지를 가진 지배자라는 점, 그리고 교훈을 남긴 사람이 임종을 앞둔 노인으로 묘사되어있다는 점도 서로 같고, 또 화살을 부러뜨리는 것도 같다.

그러나 이 내용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첫째, 모토나리의 자식이 3명이 아니라 실제로는 12명(아들 10명, 딸 2명)이었다. 즉, 자식의 수가 많았다. 그러므로 3명만 부른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둘째, 모토나리의 임종 시 아들 모임에 장남 다카모토(隆元)는 없었다. 그는 모토나리가 향년 75세로 사망하던 1571년(元龜2)에 이미 사망하고 없었기 때문이다.<sup>14)</sup>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토나리가 사망하던 해보다 8년 전인 1563년(永祿6)에 아마고씨(尼子氏)와의 싸우기 위해 가던 도중 41세의 나이로 급사했다. 그리고 차남 모토하루(元春)도 아마고 가즈히사(尼子勝久:1553-1578)를 토벌하기 이즈모(出雲)의 다카세(高瀬)에 출전 중이었기 때문에 모토나리의 곁에 있을 수 없었다.<sup>15)</sup> 그러므로 모토나리의 임종 시 아들 세 명이 모두 모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셋째는 모토나리 임종 시 차남인 모토하루는 41세, 삼남인 다카카게(隆景)는 38세였다. 즉, 이들은 연약한 소년 이 아니라 힘을 쓸 줄 아는 장년의 무사로 성장해 있었다. 그러므로 다발로 묶인 세 개의 화살을 부러뜨리지 못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이처럼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이것은 모토나리의 사후 윤색되어진 가공된 설화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것일까? 기록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모토나리가 사망한 해보다 훨씬 후인 18세기 때 편찬된 서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전교구장문서(前橋旧蔵聞書)』(권5)와 『상산기담(常山紀談)』(16권)이다. 전자는 작자미상이나, 원문연간(元文年間:1735-1741)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3>

모리오호에 모토나리(毛利大江元就)가 죽음이 임박하였을 때 많은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자식의 수만큼 화살을 준비해두고, “한 개라면 쉽게 꺾어지

14) 井澤元彦(2001), 앞의 글, p.223.

15) 若林力(2002) 「毛利元就の<三矢の訓え>は史實か-<<近古史談>>異聞」 『月刊しにか(13-2)』、大修館書店、p.102.

지만, 이를 모두 묶어 하나의 다발로 묶으면 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각자 일미동심(一味同心)하는 생각으로 화친하는 것을 으뜸으로 삼아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그 때 다카카게(隆景)가 말하기를 “어떤 일도 모두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오로지 의(義)를 지킨다면 형제 사이가 불화는 없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모토나리는 감동하여, 각자 모두 다카카게가 말하는 바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sup>16)</sup>

이상의 내용에서 보듯이 모토나리가 아들들에게 화살을 직접 꺾게 하였는지, 아니면 그것을 보여 주며 말로만 훈계를 하였는지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다.

이에 비해 후자는 전자보다 약간 후에 오카야마(岡山)의 유학자 유아사 조산(湯淺常山: 1708-1781)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은 앞의 『전교구장문서』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만 서술이 비교적 전자의 것과 보다 자세하며, 자식 중 3남 다카카게가 마치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고 있는 것도 눈길을 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4>

부친 모토나리가 병이 악화되자 자식들을 불러놓고, 자식 수만큼 화살을 가지고 오게 하더니 “많은 화살을 하나로 묶고 부러뜨리려고 하면 (아무리) 가는 것이라 해도 부러뜨리기 어렵다. 그러나 하나씩 나누어 부러뜨리려고 하였을 때는 매우 쉽게 부러진다. 형제의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유언을 하였다. 바로 이때 다카카게(隆景)가 “싸움은 욕심에서 일어나는 것, 욕심을 버리고 의리를 지키면 형제의 불화는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자 모토나리는 기뻐하며 모두 다카카게의 말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했다.<sup>17)</sup>

이상의 내용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사례13>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모토나리가 임종 시 불러들인 자식의 수가 명시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은 3남인 다카카게로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도 모토나리

16) 현재 이 도서는 국립공문서관(國立公文書館)에 소장되어있다. 모두 10권인데, 이 부분의 내용은 5권에 수록되어있다. 若林力(2002), 앞의 논문, pp.104-105.

17) 湯淺常山(1979) 『定本常山紀談』(下卷) `新人物往来社` p.48.

의 자식들이 실제로 아버지의 명에 따라 화살을 부러뜨렸는지도 분명치 않다. 그 부분은 <사례13>과 같다. 다시 말해 그 부분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앞 뒤 정황상 그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에 접어들어서 오오쓰키 반케이(大槻磐溪:1801-1878)의 『근고사담(近古史談)』, 오카노야 시게자네(岡谷繁実:1835-1920)의 『명장언행록(名将言行録)』에도 같은 내용이 이어지다가 1882년(明治15) 모토다 나가사네(元田永孚:1818 -1891年)가 편찬한 도덕교육서(道德教育書)인 『유학강요(幼學綱要)』에 이르러서야 「모리모토나리가 병으로 인해 죽으려고 할 때 자식들을(본문에는 諸氏로 되어있다) 자기 앞에 불러들이고 자식의 수만큼 화살을 묶어 힘을 최대화하여 부러뜨려보려고 하였지만 부러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것을 하나씩 뽑아서 부러뜨리게 하였더니 쉽게 부러졌다. 이를 보고 말하기를 형제는 이와 같다. 화합하면 곧 서로 의지하여 일을 이룰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곧 각자 패하게 된다.」<sup>18)</sup>라고 되어있다. 이처럼 어린이를 위한 도덕 교과서에는 애매하게 표현하지 않고, 부러뜨리게 하였다고 사실성 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893년(明治26)에 발행된 소학교용 『일본역사(日本歴史)』(전편 제2권)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있다.

#### <사례15>

세상에 전하기를 모토나리가 죽을 때 자제들을 침소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의 다발로 묶은 화살을 내더니 꺾어보라고 했다. 이에 잘 꺾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다발을 풀어서 하나씩 꺾어보게 하더니 “너희들은 이것을 보거라. 힘을 합하면 꺾기 어렵고, 흐트러지면 꺾기 쉽다. 내가 죽은 후에 너희들은 마음을 하나로 하고 힘을 합치거라.”하고 말했다.<sup>19)</sup>

여기서도 자식들의 이름이 거론되지도 않으며, 또 그 숫자도 명시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본 <사례14>과 같다. 더구나 이야기의 서두에 「세

18) 원문은 다음과 같다. 「毛利元就病てまさに死せんとす。諸氏を前に召し、其子の數の矢を束ねて力を極めて之を折れども斷えず。また其一條を抜き、隨つて折れば隨つて斷ゆ。曰く、兄弟はこの矢の如し。和すれば則ち相依つて事をなし、和せざれば則ち各々敗る」.

19) 岩下紀之(1987) 「毛利元就の三本の矢の話」 『愛知淑徳大學論集(12)』、愛知淑徳大學、p.111에서 재인용.

상에 전하기를」하며 언급한 것도 이 이야기가 역사적 실제 사건이 아니라는 점을 편저자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예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는 자식들에게 실제로 화살을 부러뜨리게 하였는지를 애매모호하게 처리했다면 여기에서는 앞에서 본 모토다 나가사네의 『유학강요』와 같이 그것을 구체화하여 자식들에게 부러뜨리게 하였다고 기술되어있다.

이것은 아마도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과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모른다. 그 반면 여기에서는 <사례12>과 같이 자식의 수를 3명, 그리고 3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다만 「자제들」이라고 모호하게 처리되어있다. 자식의 수가 3명으로 고정화되고, 또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된 것은 20세기에 접어든 1918년(大正7)의 제3기 국정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6>

어느 날 모리 모토나리는 그의 아들 다카모토, 모토하루, 다카카게의 3명에게 하나의 서류를 건넸습니다. 그것에는 「세 명 모두 모리가문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조금이라도 대립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 다카모토는 2명의 아우를 사랑하고, 모토하루와 다카카게는 형을 잘 섬기도록 하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또 다카모토에게는 별도로 서류를 건네며, 「이 서류에 적힌 것을 잘 지켜서 집안의 번성을 도모하라.」고 하며 진심으로 훈육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함께 이름을 나란히 적은 서류(請書)를 아버지에게 바치며 「3명이 모두 함께 아버지의 가르침을 지키겠습니다.」고 맹세하였습니다. 그 후 다카모토는 빨리 죽어서 그의 아들 테루모토(輝元)가 가계를 계승하였습니다. 모토하루, 다카카게는 아버지의 유훈을 잘 지켜 마음을 합하여 테루모토를 도왔기 때문에 모리가문은 오랫동안 번성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sup>20)</sup>

여기서는 세 명의 아들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한다. 이 점은 <사례12>와 같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점 하나가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례16>에서는 화살의 교훈담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대신 3명의 아들들에게 형제들의 단합을 강조하는 자신의 유훈이 적힌 서류를 건넸다고 되어있다. 이러한 내용은 그 이후 1936년 심상소학교 수신서뿐만 아니라,<sup>21)</sup> 1939년

20) 岩下紀之(1987), 앞의 논문, p.111에서 재인용.

조선총독부가 낸 초등학교 수신서<sup>22)</sup>에도 실려 있다. 당시 문부성에서도 화살의 교훈담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요소는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3개의 화살 교훈담은 일단 교과서에서는 자취를 감춘다.

3개의 화살담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1557년(弘治3) 모토나리는 다카모토, 모토하루, 다카카게에게 훈육의 내용이 적힌 「모리모토나리 자필서장(自筆書狀) 1통」(毛利家文庫405号) 이른바 「세 아들의 교훈장(三子教訓狀)」이라 불리는 유언장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sup>23)</sup>

이것은 모리가의 가훈으로서 당시 모리가가 처해 있었던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형제들의 결속을 강조한 것이다. 구성은 전14조로 각 항목마다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 중 제3조에 「세삼스럽게 말할 필요가 없지만, 3명의 사이가 조금도 사이가 벌어져서는 안된다. 그러한 것이 있다면 3명 모두 망한다고 생각하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즉, <사례16>는 모토나리의 「삼자교훈장」을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이야기이었다.

그런데 <사례14>와 <사례15>와 같은 화살의 교훈담 계열의 이야기와 <사례16>과 같은 「삼자교훈장」 계열의 이야기를 중첩하면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12>와 같은 이야기가 된다. 다시 말하여 3명의 아들에게 남긴 유언서가 3개 화살을 통한 임종의 가르침(유언)이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살의 교훈담이 일본에 정착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는다. 아무리 높게 잡아도 17세기 이전까지는 올라가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은 어떻게 화살의 교훈담을 접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가능성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우연의 일치이다. 자식들의 단합을 바라는 심정은 세상 어느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것이 유럽에서는 이솝우화로, 아랍에서는 장수, 스키타아에서는 스킨로스왕의 이야기로, 또 선비족에게는 토곡훈, 그리고 몽골에서 징기스칸의 선조 알란 고아, 그리고 한국에서는 연개소문의 이야기로

21) 김순진의 7인(2005) 『日本 尋常小学修身書 IV-V期 原文(下)』, 제이앤씨, p.114.

22) 김순진의 7인(2006) 『朝鮮總督府 初等學校 修身書 原文(下)』, 제이앤씨, p.118.

23) 黒田彰(2000) 「三矢の訓と荊樹連陰--二十四孝の享受」 『愛知県立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論集 (1)』、愛知県立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p.155.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 곳곳에 유사한 내용이 발견되고, 특히 일본의 이야기가 선비족과 몽골의 것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것은 부모의 보편성에 나온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렵다. 즉, 문화전파에 의해 형성된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이솝우화가 직접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솝우화가 일찍이 일본에 소개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선후기에 해당되는 에도시대(江戸時代)에 일본에 소개된 이솝우화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1593년(文祿2) 『이소호의 하브라스(ESOPO NO FABVLAS)』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회 선교사들이 라틴어로 된 것을 번역한 것으로 구마모토의 아사쿠사(天草)에 있었던 꼬레지오에서 인쇄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사쿠사본 『伊曾保物語』>라 불린다. 또 다른 하나는 에도 초기부터 출판되어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일반적으로 『이소호모노가다리(伊曾保物語)』라는 불리는 이솝우화이다.

그런데 화살교훈담이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이솝우화집을 바라다보았을 때 상당한 차이가 발견된다. 즉, 전자에는 화살교훈담과 같은 계열의 <농민과 자식의 이야기>가 들어 있지만,<sup>24)</sup> 후자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후자는 화살교훈담과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자인 『이소호의 하브라스』가 일본의 화살교훈담에 영향을 끼쳤을까? 특히 모토나리가 기독교 수용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취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모토나리의 화살교훈담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어를 익히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또 원문이 일본어가 아닌 로마자로 표기되어있다. 즉, 일본인에게 서양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일반적인 책이 아니었고, 그것을 읽는 사람은 주로 서양선교사들이었다. 그러므로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것을 읽고 모토나리의 화살교훈담을 만들어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필자는 오히려 이솝우화가 아닌 한문으로 된 서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한문은 그들도 읽을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중국에서 수입된 역사서 등을 통해 해외에 대한 지식

24) 中務哲郎訳(1999) 『イソップ寓話集』、岩波文庫、p.79.

을 충분히 얻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증으로 1660년(万治3)경 다치바나 노키산진(橋軒散人=辻原元甫)에 의해 편찬된 『지혜감(智惠鑑)』(上智部 제3화)에 토곡혼의 화살교훈담이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있다.

<사례17>

토곡혼의 군주 아시(阿豺)가 병상에 누워, 이미 목숨이 위협에 처했을 때 20명의 자식들을 불러 모으고 유언을 남기는 데, 나의 아내의 동생 모리연(慕利延)을 불러 하나의 화살을 끄집어 내어 “꺾어 보아라”고 하였다. 이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19개의 화살을 묶은 것을 내더니 “이것도 한번에 꺾어보아라”라고 하여 꺾었으나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시가 말하기를 “친척 형제들이 하나가 된다면 비록 내가 죽고 없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적이 쳐들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19개 화살을 꺾기 어려운 것과 같다. 만일 사이가 나빠져 한사람 한사람 흩어지면 한 개의 화살과 같이 쉽게 꺾이는 것과 같다.<sup>25)</sup>

이상의 내용이 다소 북사의 이야기인 <사례7>과 다소 차이를 보이지만, 필자인 다치바나가 『북사』를 보고, 그 내용을 소개하였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17세기경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의 3개 화살 교훈담은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럴 가능성은 오오쓰키 반케이가 자신의 저서인 『근고사담』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오오쓰키는 『근고사담』에서 모토노리의 화살교훈담을 소개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최홍(崔鴻)의 『서진록(西秦錄)』에 수록된 토곡혼의 화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있다는 것은 그 역시 토곡혼의 화살교훈담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오오쓰키 반케이가 소개하고 있는 토곡혼의 이야기를 보면 <사례17>과 고유명사의 표기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아시(阿豺)를 아시(阿柴)로, 모리연(慕利延)을 모연(慕延)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즉, 『북사』(제84)나 『위서(魏書)』의 「열전」(제89)에서는 <사례16>과 같이 아시(阿豺), 모리연(慕利延)으로 표기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오쓰키가 잘못 표기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중국 문헌 가운데서도 『태평어람』은 아시(阿柴), 모연(慕延)

25) 앞의 논문, 若林力(2002) p.108에서 재인용.

되어있다. 따라서 다치바나는 『북사』, 오오쓰키는 『태평어람』에 각기 수용된 것을 소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일본의 지식인들은 『북사』는 물론 『태평어람』에 수록된 토곡혼의 화살 교훈담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토대로 모토나리의 화살교훈담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혹자는 토곡혼에서는 20명의 자식이지만, 몽골에서는 5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본과 가깝다는 이유를 들어 일본 화살교훈담이 몽골의 영향을 받아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원조비사』는 원의 조정에서도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었다. 즉, 말 그대로 비밀스러운 역사(秘史)에 속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원문이 한문이 아닌 몽골어로 되어있고, 또 대역으로 된 중국어 또한 속어가 많이 혼재되어있기 때문에 보통 한문의 지식으로 해독하는 것이 여간 용이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원이 멸망한 직후 명나라 측이 입수하여 홍무연간(洪武年間)에 우선 몽골어로 원문을 한자로 음사(音寫)한 연후에 중국어로 번역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서적을 외국인인 일본인이 수입하여 그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모토나리의 화살교훈담을 만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일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몽골비사』가 아니라, 『북사』와 『태평어람』 등에 기록된 토곡혼의 아시아 이야기이다. 다시 말해 모토나리의 화살교훈담은 이솝우화보다 토곡혼의 이야기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 5. 나가기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리 모토나리의 화살교훈담은 단순히 일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의 이솝우화에서 시작하여 이란 북부 스키타이 왕가에 전해졌고, 그것이 다시 동진하여 고대 선비족의 국가 토곡혼과 고구려에 전래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중세 정기스칸의 제국 몽고에 전래되었으며, 근세에 이르러서는 일본 모리가문의 가훈신화(家訓神話)로 정착했다.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려 지나간 여행을 하는 동안 이솝우화에서는 막대기이었던 것이

스키타이왕가에서는 창으로 변신했고, 그리고 토곡혼에 이르러서는 창이 또 화살로 변신하더니 몽고와 한국, 일본에서는 완벽한 화살의 교훈담이 되었다. 이처럼 모리 모토나리의 화살 이야기는 동서양의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다.

일본인에게 있어서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 역사 속에 묻혀있는 교훈담이 아니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야마구치현 하기시(萩市)는 시민회관 앞에 화살교훈담을 토대로 동상을 세워놓고 있다. 그것은 화합과 단결을 강조하는 「화(和)」라는 글자를 새긴 둥근 단 위에 한 두관을 쓴 모토나리가 손에 3개의 화살을 쥐고 어린 아들 3명과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다. 즉, 모토나리가 자식들에게 형제의 우애와 단결을 가르쳤듯이 하기시가 그것을 통하여 하기시 민들의 화합을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징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모토나리가 본거지였던 히로시마의 아키다카다시(安芸高田市)에서도 화살의 교훈을 살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향이 3개 화살의 교훈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소년자연의 집에다 「삼시훈적(三矢訓跡)」라고 새겨진 비석(石碑)과 모토나리가 거주했던 성 입구에는 그것을 응용하여 백만명의 마음이 하나라는 의미인 「백만일심(百万一心)」 문구가 적힌 비석을 세웠다.

한편 1991년 J리그 시작과 더불어 히로시마에서 탄생한 프로축구팀은 3개의 화살교훈담을 달려 3을 의미하는 일본어 「산」과 화살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 「프렛체(frecce)」를 합성하여 「산프렛체 히로시마(Sanfrecce Hiroshima) F. C」라는 이름을 지었다. 로고는 물론 3개의 화살을 사용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이 팀의 「골 세레머니」는 화살을 쏘는 모양을 취하는 자세로 정해졌다. 따라서 선수들은 자신이 찬 공이 골에 들어가면 축구장 잔디에서 화살을 쏘는 포즈를 취한다. 이와 같이 기원전 소아시아의 이솝우화에서 발달된 형제우애를 강조한 이야기가 일본에서는 전래되어 역사적 사실과는 관계없이 모리가문의 가훈신화로 발전하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소중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순전의 7인(2005) 『日本 尋常小学修身書 IV-V期 原文(下)』, 제이앤씨, p.114.  
 김순전의 7인(2006) 『朝鮮總督府 初等学校 修身書 原文(下)』, 제이앤씨, p.118.  
 김은수(1991) 『註解 桓檀古記』, 기린원, pp.237-238.  
 동북아역사재단편(2010) 『북사 외국전 역주(상)』, 동북아역사재단, pp.196-197.  
 유원수역주(2006) 『몽골비사 -元朝秘史-』, 사계절출판사, pp.26-27.  
 지배선(1983) 「토곡훈과 서역제국과의 교섭에 대하여」 『한성사학(1)』, 한성사학회, p.105.  
 井沢元彦(2001) 『逆説の日本史 (9) 戦国野望編』, 小学館, pp.222-223.  
 岩下紀之(1987) 「毛利元就の三本の矢の話」 『愛知淑徳大学論集(12)』, 愛知淑徳大学, p.111.  
 河野与一編訳(2000) 「棒のおしえ」 『イソップのお話』, 岩波書店, p.62.  
 黒田彰(2000) 「三矢の訓と荊樹連陰--二十四孝の享受」 『愛知県立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  
 論集 (1)』, 愛知県立大学大学院国際文化研究科, p.155.  
 中務哲郎訳(1999) 『イソップ寓話集』, 岩波文庫, p.79.  
 プルタルコス、柳沼重剛訳(1985) 『饒舌について—他五篇』, 岩波文庫, p.64.  
 護雅夫(1952) 「矢を分け与える話—北アジアシャーマニズム研究の一節—」 『北方文化研究報告』  
 第7輯、北海道大学北方文化研究室, p.95.  
 山本光雄訳(1963) 「〈兄弟喧嘩をする〉百姓の息子たち」 『イソップ寓話集(86)』, 岩波文庫, p.79.  
 若林力(2002) 「毛利元就の〈三矢の訓え〉は史実か—〈近古史談〉異聞」 『月刊しにか(13-2)』,  
 大修館書店, pp.102-109.

논문 투고 일자 : 2020. 02. 29. 논문 심사 일자 : 2020. 04. 24. 게재 확정 일자 : 2020. 04. 24.
--

---

 < 要旨 >
 

---

## 日本に定着した三矢の訓え

魯成煥

三矢の訓えは父親の遺訓を奉じ息子達の団結を強調する話で有名である。日本では、毛利元就の遺訓譚として広く知られている。しかし、これは日本だけのものではなかった。これまでに採集された全世界に分布している説話を見渡してみると、次のような一つの仮説を設定することができる。すなわち、その原郷は、日本ではなく小アジアのイソップ寓話であり、そこからアフリカ、アラビア、ロシア、欧州などに広がって行った。そのうちの一つがイラン北部スキタイ王家に伝わり、それが再び東進して古代鮮卑族の国家吐谷渾と高句麗に伝来され、その後、中世ジンギスカン帝国モンゴルに伝わり、近世に至って、日本の毛利家の教訓神話として定着した。このように、長い時間をかけて遠い旅をしているあいだ、元々棒であったものがスキタイ王家では槍に変身し、吐谷渾では槍が矢に変身し、モンゴルや韓国、日本へ伝来した際には完全に矢の教訓譚となった。このように、毛利元就の三矢の訓えは東西の文化交流を象徴するものでもあった。

## The Apologue of the Three Arrows Settled in Japan

No, Sung-Hwan

The Apologue of the Three Arrows is well-known for the story emphasizing union of sons who respect their father's death-bed teaching. In Japan, it is widely known as the apologue of Mori Motonari. However, this story does not exclusively belong to Japan. After collecting the numerous stories spread across the world, it is possible to set up a hypothesis as follows: In sum, the root of this story does not derive from Japan but from the Aesop's Fables of Asia Minor. Starting from the region, it gradually expanded into Africa, the Arab world, Russia and Europe. One of the stories was delivered to the royal family of Scythia of the Northern Iran and the same story moved towards the east until being transferred to Tuyuhun, the country of the ancient Xianbei as well as Goguryeo. Later, it was passed down to Mongolia, the empire of Genghis Khan. During the early modern period, it settled as an apologue of the Mori family of Japan. Like this, in the course of a long journey, the sticks in Aesop's Fables transformed into spears in the royal family of Scythia. The same objects changed into arrows on arriving in Tuyuhun. Finally, the story became a perfect apologue of arrows in Mongolia, Korea and Japan. This way, the story of three arrows of Mori Motonari also served as a symbol of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